

OG4) 하동송림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관리문제

박구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지역전략연구부

1. 서 론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마을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를 계기로 해안송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송림이 도시경관 및 해안관광자원으로서의 인식이 커지면서, 해안송림에 대한 올바른 보전 및 관리가 환경계획 분야에서의 새로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안송림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크게 진척되고 있지 않다.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해안림의 전체적인 실태, 역사적 변화, 실제적 기능 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국가의 산림업무를 총괄하는 산림청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조차 해안송림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힘든 것이 금일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기초연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동송림을 대상으로 해안송림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관리적 문제를 분석해, 그의 관리방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것에 있다.

2. 연구방법

하동송림은 경상남도 하동군 섬진강변에 위치한 면적 약3.5ha의 인공 해안림이다(엄격히 말하면, “호안림”이라 부르는 것이 적합하겠으나,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해안림”이라 함). 순수 소나무 군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동송림은 섬진강변의 제방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으며, 송림 앞에는 구래와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이 흐르고, 송림 뒤쪽에는 제방을 경계로 하동읍이 위치해 있다. 송림내부에는 하상정이라는 활터와, 300년생 소나무가 약700여 그루 아름드리 드리워져 있고, 송림 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또 송림 앞 섬진강 변에는 흰 모래가 넓게 펼쳐져 있어, 옛 부터 이곳을 “백사청송(白沙靑松)”의 지역으로 부를 만큼 아름다움 풍경을 갖추고 있다. 그간 하동송림은 경상남도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5년 2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이용객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동송림을 연구대상지로 한 것은, 송림전체가 순수 소나무 군락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안송림 중 거의 유일하게 조성연대가 밝혀지고 있고, 시가지(하동읍)와 접해 있어, 그의 변화 및 관리문제 등을 고찰하기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는 하동송림에 대해 집중 기술된 문헌이나 참고자료 등이 없기 때문에, 하동송림과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자료(하동군지, 하동군의 내부자료, 지역신문 기사, 하동문화원사업집행보고서 등)를 조사하고, 일부 부족한 자료는 관계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발췌해,

이를 시계열로 정리·분석하는 형식으로, 하동송림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관리문제를 검토했다.

3. 결 론

3.1 하동송림의 사회적 기능 변화

1) 하동송림은 1745년(영조 21년) 당시 도호부사였던 전천상이 섬진강변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해안방풍림으로 조성되었으나, 이후 취락과 5일장이 발달하면서 송림은 지역주민의 “교류 및 집회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즉, 시인묵객이 풍류를 즐기고, 대보름 축제가 열리고, 5일장 때 시집간 딸이 친정부모를 만나고, 지역유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활을 쏘고, 지역의 대사와 관련한 집회활동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1970~1980년대에는 도시근린공원 및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의 본격적인 “산보 및 레크레이션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벤치, 음수대, 산책로와,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이 당시에 조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야외수업은 물론, 씨름대회 및 활쏘기 대회 등이 활성화되어 전국규모의 대회 등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발전해 온 하동송림의 기능은, 원격지에 위치한 해안송림(예, 울주·태안·화성 송림) 등이 초기 관광지나 유원지 개념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2) 또한 하동송림은 섬진강과 조화된 풍경과 아름다리 노송으로 구성된 여유로운 정취로 인해, 지역교류 및 지역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현재 하동송림은 연간 40만 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이 내방하여 도시관광의 중요한 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하동군민의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단체 및 기관의 중요한 집회 및 교류의 장(야유회 및 정기총회)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쌍계사, 청학동, 최참판댁 등 주변자원을 위주로 발달해온 기존의 하동관광체계에서, 하동송림의 이러한 성황은 쌍계사 등을 찾은 외부관광객을 하동읍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에 있어,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송림이 단순한 주민의 레크레이션 기능을 넘어, 도시관광, 지역교류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에 있다.

3) 한편 하동송림은 지역주민의 레크레이션활동 및 도시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전하면서 주민의 공유 재산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모래채취가 주가 되는 호안정비사업에 대해 청사백송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많은 이용객으로부터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선구적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한편, 하동송림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 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바 있다. 한편, 2002년 6월에는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산림청 주관)”으로 선정된 송림(松林)숲의 유래를 알리는 “송림유래비”를 세우는 등 송림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선구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1990년대말부터는 송림을 더욱 명소화하기 위해 송림확장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그간 소수인원이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던 궁도장 및 게이트볼장 등이 지역주민들의 이전운동에 의해 이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표 1. 하동송림의 사회적 기능변화

시대	내용	기능
174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호부사 전천상이 섬진강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모래를 막기 위해 소나무 1,500여 그루 식재 · 시인묵객이 풍류를 즐김 	하동송림 조성 (해안방풍림)
일제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방지 위해 하동제방 2호 구축(송림이 양단된, 1,000여 그루 보존) · 모래밭과 함께 대보름 민속축제의 장소로 이용 · 5일장에 왔던 친정식구와 시집간 딸이 만나는 곳 · 하상정에서 지역유지들의 활시위가 정기적으로 행해지기 시작 · 지역의 대사를 결정하기 위한 집회 등의 장소로 이용 	교류·집회의 장 (커뮤니티림)
70-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지정(벤치, 음수대, 산책로 조성) ·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 · 하동 씨름대회 및 활쏘기 대회 등이 활성화 · 1982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당시, 약750여 그루의 노송과 300여 그루의 후계목로 나뉘대로 울창한 숲이 보존 	산보·레크레이션장 (레크레이션림)
9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노송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송림공원 절반을 막아 3년간격으로 자연휴식년제 실시 · 1993년 하동송림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 자연보호운동 실시 · 2000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영원히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 · 1995년 송림이용객 158,015명 방문(쌍계사 406,344, 청학동 51,808) · 2004년 송림이용객 434,299명 방문 · 2005년 2월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 2005년 4월 현재 약700여 그루의 노송이 보존되어 있으며, 하동읍 도시관광 및 지역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교류·관광거점 (지역자원림)

현재에도 이어져 하동송림의 보전과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군과 주민들의 힘으로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송림이 지역활성화는 물론 지역사랑운동의 마음을 키우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에 있다.

3.2. 하동송림의 관리적 문제

1) 하동송림의 관리방향은 기본적으로 보전과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자연휴식년제, 소나무재선충구제책 등을 통해 풍치 및 산림을 보전하고, 편익시설의 정비(산책로 및 벤치 확충), 송림확장계획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활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하동송림의 이용이 커지면서 자연휴식년제와 송림확장계획 등이 추진되어왔지만, 이용객에 의한 하천오염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송림확장계획에 의해 새롭게 식재된 나무는 그 수종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비난이 높아 계획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최근 소나무재선충출 문제에 대응한 방책으로 고사목의 소각과, 뿌리 발육을 높이기 위해 떨어진 솔잎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의 경우, 뿌리의 부영양화는 오히려 뿌리를 약화시켜 솔잎혹파리 감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어, 이들 방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해안송림에 대한 역사적 인식, 관리시스템,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하동송림에 대한 역사는 사실보다는 관념적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동송림에 대해서는 관에서나 주민이나, 신문기사에 있어서도 거의 천편일률적인 내용만이 반복적으로 회자될 뿐, 이를 깊이 있게 다룬 문헌이나 역사적 자료가 없다. 하동송림이 어떠한 경위와 형태로 식재되었고, 식재 후 이들이 어떻게 관리·보전되었는지 그 역사성이 불명확하다. 또한 그간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송림이 순수 소나무 군락으로 양호하게 보전되어온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명확치 않다. 그러나 자원에 대한 역사성은 자원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에 있어, 이러한 역사성의 기여는 하동송림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또는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가 없다. 현재 하동송림의 실질적인 관리는 하동군이 담당하고 있으나, 각 실과별(통상과: 도시계획, 미래환경과: 환경관리, 산림녹지과: 병충해관리, 문화관광과: 이용·보전)로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이들 각 실과의 업무내용은 극히 단순한 사업에 그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만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관에서 책임 있는 관리주체를 형성시키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는 것이 금후 송림관리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송림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책 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송림의 관리방법은 앞서 기술한 송림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기초로 형성되는 것에 있고, 특히 송림은 소나무라는 식생적 구조와 그의 활용방향에 따라 그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것에 있어, 송림의 관리에 있어서는 이들(식생구조, 이용 및 관리문제)의 상호적인 관계성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송림에 대한 연구는 소나무재선충 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회적 변화 및 식생학적 견지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표 2. 하동송림의 관리문제

구분	내용
역사규명에 대한 노력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송림의 식재 및 관리 개념 등 송림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하동송림에 대한 가치와 관리방법을 논할 기본적인 토대가 부족함
책임 있는 관리주체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림관리가 각 실과별로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실과의 업무내용은 극히 단순한 업무내용에 그치고 있어, 책임 있는 관리 주체가 형성되지 못함 · 이로 인해 송림에 대한 능동적인 사업전개가 약하고, 추진된 사업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관리·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소나무재선충 방지를 위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회적 또는 식생학적 견지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임 · 소나무재선충 문제에서 보듯, 어떤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진단 및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함

4. 요약

최근 해안송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안송림이 어떻게 변천되고 지역에 어떻게 기능해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 본고는 해안송림의 기초연구로서, 하동송림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안송림의 사회적인 기능과 관리문제를 검토한 것에 있다. 하동송림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 해안송림은 송림이 지역과 밀착함으로써 주민의 레크레이션기능은 물론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송림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면서, 송림에 대한 관리 및 주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실질적 기능 및 자연스러운 관리의식의 고양은 일반 공원이나 원거리 해안림 등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마을 숲(해안송림 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는 하천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송림확장계획이 중지되고, 소나무재선충 방지책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으로는 해안송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 책임 있는 관리주체의 부재,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 등이 검토된다. 해안송림의 기능과 식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논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일반적 임업관리나, 시설보수 차원에서 접근은 소중한 지역의 자산과 발전기회를 잃은 거와 다르지 않다. 소중한 지역자원의 가치를 빛내고,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파지티브한 관리 및 활용 정책이 요구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함께, 토지사병에 기초한 송림의 이용 및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朴九遠, 井上 普, 山内由美子, 2003, 도시해안림의 변용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과 학회 봄 학술발표논문집 12(2): 77-81.
- 立石友男, 1981, 壓内川北砂丘における入會林野の成立とその變容, 地理誌叢, Vol.22, pp. 10~22.
- 村井 宏, 石川政幸, 遠勝治郎, 兄木郎也, 1992, 日本の海岸林-多面的である環境機能とその活用-, 東京, ソフトサイオンス社, pp. 512-513.
- 河東郡誌編纂委員會, 1996, 河東郡誌(上卷), pp.96-102.
- 하동군 문화관광과, 2004년 하동군 관광객이동현황.
- 인터넷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부산일보(<http://busanilbo.com>) 등